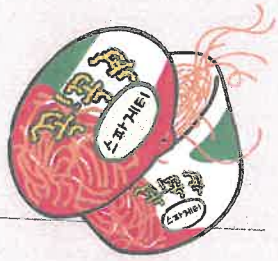
For better or worse, till death do us part
I'll love you with every beat my heart



부운군 장학회 이사장님께.

온 세상이 꽃들로 가득한 따뜻한 봄입니다.
저희 가슴속에도 이사장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과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여러가지로 힘겨운 시기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해주신 이사장님께 고마움을 담아 감사하려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던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보탬이 되서 더 열심히 본분에 충실하려하고 학부모들 역시 보람도 느끼고 생활에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어요.
열심히 하면된다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신것 같아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상과 꿈을 심어준 계기가 된것같아 이런 기회가 많은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주어졌으면하는 조그만 바램이 있네요.
지역 인재 육성에 힘써주시는 것을 저희 부운군은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부운군을 빛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운군 장학회가 앞으로도 발전하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redacted] 올림..